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 동 룰  
서강대 교수

제2차 세계대전 전, 무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다. 종업원 여자가 있다. 팜프 파탈 형이다. 주인 남자 A가 그녀를 사랑했다. 흠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남자 B도 그녀를 사랑했다. 여자는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했다. 남자 A는 남자 B와 사랑에 빠진 여자에게 말한다. “당신을 잃느니 반쪽이라도 갖겠어.” 같이 사랑해도 좋다는 의미다. “놓치지 보다는 반 만이라고 갖는 것이 낫겠다”는 대사는 한동안 회자된다. 얼마 뒤 또 한 남자 C가 등장한다. 여행은 독일인이다. 여자에게 구애했으나 거절당하자 검푸른 다뉴브 강에 투신한다. 뒤따라간 남자 A가 건져낸다.

의리 없는 시대를 위한 만가

전쟁이 일어났다. 남자 C는 점령군 독일군의 고급장교로 등장한다. 엄청난 권력자다. 피아니스트 남자 B는 권력자로 돌아와 다시 여자를 욕망하는 C를 보고 좌절해 자살한다. 남자 C는 생명의 은인인 남자 A를 가스실로 보낸다. 남자 A를 구해 준다는 말에 여자는 남자 C에게 몸을 허락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훌륭한 사업가로 변신한 남자 C가 추억속에 레스토랑을 다시 찾았다. 늘 잦던 비프 톨을 먹던 그는 목을 움켜지고 죽는다. 독살이다. 이어 백발의 한 여자가 샴페인을 치켜들며 행복해 한다. 수십 년을 기다려 온 복수에 성공한 것이다. 이름 되면 애 하고 이마를 타치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없었다. 무슨 얘기가 될지 모르는 사람은 끈대소리쯤 들어도 될 법하다. 1999년 개봉된 영화 ‘그루미 선데이’(gloomy Sunday)의 줄거리다. 한 여자가 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없었다. 무슨 얘기가 될지 모르는 사람은 끈대소리쯤 들어도 될 법하다. 1999년 개봉된 영화 ‘그루미 선데이’(gloomy Sunday)의 줄거리다. 한 여자가 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없었다. 무슨 얘기가 될지 모르는 사람은 끈대소리쯤 들어도 될 법하다.

의료칼럼

장마철 건강관리



박 상 현  
세계로병원 1내과 원장

7월 이후 월드컵 열기 만큼이나 후끈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조만간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맘때면 잘못된 음식물 섭취와 개인 위생 습관으로 인해 식중독 등 각종 전염성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연일 고온다습한 날씨에 체내 면역기능도 떨어지고, 각종 질환들이 극성을 부려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은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위장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의 증식이 활

발해지고, 가열되지 않은 상태의 음료수나 식품의 섭취가 증가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식중독의 주된 원인균으로는 포도상구균·비브리오균·대장균·살모넬라균 등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 세균에서 분비되는 독소는 끓여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관리나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중독의 일반 증상인 설사·구역·구토가 심한 상태에서 몸에 적절한 수분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한 탈수, 쇼크, 대사성 산증, 급성신부전까지 유발될 수 있다. 식중독은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회복된다. 그러나 유아나 노인·병약자는 경미한 설사, 구토에 의해서도 탈수가 되면서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설사가 3일 이상 지속되고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 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식중독으로 설사를 하면 자가진단만으로 지나치게 한창제를 함부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 설사는 몸속의 세균이나 독소를 장에서 흡수되지 않도록 체

튼금없이 영화 얘기를 꺼내는 것은 방학을 틈타 헝가리를 다녀왔기 때문이다. 방문 일정 중 어느 하루, 나는 만사를 제쳐두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레스토랑을 찾았다. 레스토랑은 부다페스트 도심 외곽 동물원 옆에 있었다. 고풍스런 현관에는 교황, 영국여왕, 반기문 총장 등 세계 저명인사가 다녀갔음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순간 영화 속의 한 여자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저마다의 인간 관계에 빠져 들었다. 영화는 무엇이 인간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지속하고 오래 가는지를 생각해 한다. 동시에 영화는 인간의 변신과 집념, 광기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더불어 인간이 가지는 최소한의 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약한 피아니스트는 권력자의 위세에 놀려 스스로 방어쇠를 당기고, 부유하지만 무기력한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남겨두고 운명에 순응한 채 가스실로 간다. 여자는 몸을 던져서라도 사랑하는 이를 구하려 하지만 배신을 당하고, 광기에 휩싸인 남자는 생명의 은인마저 가스실로 보내는 것으로 인간의 도리를 배반한다. 이런 장면은 우리게도 낯설지 않다. 사

람들은 저마다의 욕망에 따라 배신하고 낯을 바꾼다. 믿음과 신뢰,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하루가 다르게 빛이 바래져 가고 있다. 인간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지금까지도 위세를 떨치고 있는 말 중의 하나는 의리다. 잔혹한 폭력영화라고 해서 리치면서드 노오르 영화를 보며 쾌감을 느끼는 것은 의리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훨씬 강력하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서 의리라는 말은 본래의 말보다는 패거리 정서 정도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 ‘의리 없는 놈’이란 말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된다. 그러나 건달들이 주고받던 ‘의리’는 원래 인간의 참된 도리를 의미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 보며 나는 의리없는 한국 사회를 걱정스레 지켜보고 있다. 이를 위해 목숨까지 던지는 극단적인 태도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조차 없는 우울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의리없는 시대에 나홀로 의리를 외치는 한물간 한 남자가 뜬금없이 ‘우리우리하게’ 보이는 것이다.

社說

채소값 파동, 더 이상 땀질식 대책 안 된다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시기를 맞아 요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마늘·양파 등 채소류까지 예년보다 30~60% 이상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서울 가락도매시장에 따르면 상품(上品) 기준으로 양파의 kg당 가격은 64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58원에 비해 무려 61%나 하락했다. 마늘도 kg당 가격이 2300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배추 3795원 보다 39%가 떨어졌다. 배추 59%, 무 51%, 대파 39%, 부추 27% 등 채소류도 폭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양파는 재고량이 많은데다 금년 봄에 생산한 햇양파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파동을 겪고 있다. 농민들은 “올해 생산한 양파 중 팔린 것은 5%에 불과하다”며 “도로에 방치하다시피 쌓아 놓고 있지만 워낙 헐값이어서 도둑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한숨을 지었다. 여기에다 가격 보장에 도움이 됐던

산지농산물유통센터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 값이 떨어질 경우 최소한의 가격으로 구매해왔지만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농산물 파동은 근본 대책을 외면해온 농정당국에 책임이 있다. 파동 조짐을 보이면 산지 폐기나 부분적인 수매로 땀질해온 게 전부다. 지금 농촌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한·중FTA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쌀 시장마저 개방이 공식화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심정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농정당국은 먼저 농산물 수급 조절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적정 재배 및 계약 재배 유도, 직거래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산지유통센터 지원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지식처럼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거나 헐값에 팔아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죽어가는 4대강’ 책임 소재 분명히 따져야

‘단군 이래 최대 도목공사’로 불렸던 4대강 사업, 기획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불과 3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영산강의 승촌비계통이나 신경계통에 균형이 깨지고 대사 능력이 떨어지며 면역력의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쉽다. 게다가 연일 퍼붓는 게릴라성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각종 수인성 질병이 기승을 부리며 일사량이 부족해 각종 세균이 증식하기 쉽다. 장마철에는 불쾌지수가 높아져 누구나 쉽게 짜증을 낸다. 게다가 햇빛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면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양이 늘어나면서 수면 및 진정작용을 유도해 침울한 기분이 들 수 있다. 멜라토닌은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밤이면 조금 분비되고 어두워지면 많이 분비된다. 또한 외출이나 나들이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압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감성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적당한 방향으로 실내온도와 습도를 내리고 낮에도 환하게 불을 켜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타내고 있다. 고인 물에서만 살며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외래종 태형동물 ‘큰빛이끼벌레’도 최근 이곳에서 확인됐다. 조사에 동행한 도목전문가는 “이러다간 영산강에서 물고기를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4대강 곳곳에서는 유속 정체·수질 악화·침식 등 생태계 교란이 확인되고 있다. 무려 22조 원을 투입했지만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원상 복구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빛 8조 원을 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타당성조차 따져보지 않은 채 밀어붙여 놓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이다. 환경 파괴 대가로 세금까지 부담하라니 역장이 무너질 노릇 아닌가. 이제 그 책임 소재부터 분명히 따져야 할 때다.

기 고

일자리 만들어 지역의 매력 높이자



이 승 옥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얼마 전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다. 2016년에 개최할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나오시마섬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일본도 농어촌과 섬 지역이 낙후되어 정부와 민간부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오시마 섬은 둘레가 16Km에 불과한 작은 섬이다. 산업폐물이 쌓여 오랫동안 버려졌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베네세 그룹에서 미술관을 건립하여 ‘디자인과 예술의 섬’으로 알려지면서 매년 수십만 명이 다녀가는 명소로

탈바꿈 했다. 그곳에 자리 잡은 지추(地中美術관은 말 그대로 땅속의 미술관이다.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가 설계하였는데 가장 일본방식이면서 자연환경과 주변경관을 잘 살린 건축물이다. 자연광을 활용한 독특한 건축구조와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 작품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에 깊이 매료되었다. 흔히,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면 웅장한 규모를 연상한다. 중국의 자금성이나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처럼 압도적인 규모는 분명 사람의 이목을 끈다. 하지만 지추 미술관처럼 작지만 특별한 매력을 가진 것도 수없이 많다. 그렇다면 매력의 본질은 무엇일까? 사전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끌어들이는 힘’이라고 ‘매력’을 정의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다른 것과 구별되는 차이일 것이다. 하나 밖에 없거나, 크거나, 넓거나, 아름다운 것들이 매력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

치 않다. 사람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오랜 잔향을 남길 수 있는 감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감성은 개인적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감성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매력은 나와 다른 것에서 느끼는 차별성이지만 보편적인 인간의 자연적 감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개별적인 매력을 넘어서 지역 전체를 보면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자. 드넓은 바다에 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00여 개의 섬이 보석처럼 박혀있다. 6400여km의 해안선은 곳곳에 자연의 신비로움을 담고 있다. 월출산,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가장 많은 국립공원과 문화재도 1108점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 천연기념물은 62종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이 보유한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서울과 경북, 경남은 옛 모습지로 문화재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이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예술 활동이 왕성했던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자원을 소재로 해서 남도음식문화 축제 등 사시사철 이어지는 남도축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남의 매력이라고 자부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만족할 수는 없다. 지역에 관광지를 개발하고 지역의 특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해야한다. 문화와 예술에 관광을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포츠도 산업화하면서 관광과 연계시켜 나간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관광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2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은 경관이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이 보전되어 있어 사람 살기에 좋은 곳이다. 여기에 일자리가 많고 소득이 높아지면 삶의 질이 높아갈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지역의 매력도는 더욱 높아져서 은퇴자뿐만이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되어 지역의 역량은 더 커질 것이다.

대형사고 악순환 그만...‘안전 대한민국’ 만들자

최근 대형참사에 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경기도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이 모든 사고들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생각하는 이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관련 조직이나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사전 안전 수칙이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실적이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우리는 흔히 인재(人災)라고 한다.

인재는 법적으로는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일반적인 판단과 대비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사고들은 선진대만의 나라에서 극히 일어나기 힘든 원시적인 사고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사고들도 얼마 동안 국민적 관심을 끌다가도 우리들의 뇌리에서 잊힐만한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대형사고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수백

명의 인명피해와 수천억 원의 초록금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있고, 이 같은 사고의 중요한 원인은 “지금껏 아무 일도 없었는데, 대충대충, 빨리빨리, 적당하게 하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주의의 극치인 안전 불감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인재사고가 발생하기 전, 확고한 안전 의식의 마인드와 책임의식으로 사전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이 잠재되어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 안전조치를 취했다더라면 미리 끔찍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때야 수습하느라 허둥지둥,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며 뒤늦게 원인은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등의 뒷북치기 답습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조금 세월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망각에 빠지면서 위험한 일을 반복해 반복을 거듭하고 있는 이상 “삶의 질 향상”과 “생명 존중”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위기를 찬스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발 빠른 안전행정이 절실하다. ▲정대엽·광주 동구 대인동

**無 等 鼓**

“뻘히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삼바축구’ 브라질이 어제 새벽 벨루오리존치의 미네이랑 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월드컵’ 준결승전에서 독일에 1-7로 대패했다. 경기 후 출판들은 절규하며 울부짖었으며 일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낯을 놓았다. 지난 1950년 발생했던 ‘마라카냥의 비극’ 그 이상의 충격이 브라질 전역을 휘감았다. 언제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월드컵 역사 84년 동안 개최국이 이 정도 점수 차로 패한 적은 없었다. 그것도 세계 축구계가 인정하는 축구 최강국 브라질이 전반 30분 만에 5골을 내주는 최악의 경기력으로 무너지다니.

월드컵 5번 우승, 브라질은 세계 최강이었다. 이 경기 전까지 102경기에서 70승 17무 15패를 기록하며 219골을 넣는 동안 91골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브라질을 상대해야 했던 나라들은 공포감에 휩싸인 채 브라질에 대해 ‘악마’라는 표현까지 썼을까. 브라질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지난 1950년 마라카냥 경기장에서 있었던 ‘마라카냥의 비극’이 오버랩된다.

당시 브라질은 월드컵 개최국으로 결승전까지 승승장구했다. 조별리그를 2승 1무로 통과했고 최강라운더에서 스웨덴과 스페인을 대패해 우루과이와 비기만 한 해도 우승이었다. 하지만 브라질은 후반전에만 2골을 허용하며 1-2로 저 준우승에 머물렀다. 다 잡은 우승을 놓친 브라질 국민들은 비탄에 빠졌고 경기 후 2명이 심장마비로 죽었는가 하면 2명은 권총 자살을 했다. 또한 브라질 전역에 조기가 개양되었고 울분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전국적으로 자살자들이 속출했다. 분노한 브라질축구협회는 당시 결승전에서 뛰었던 유니폼들을 모조리 수거해 소각한 후 유니폼 색깔을 새로 정하게 했다. 세계축구계에 논란성 공포를 심어준 세계 최고강 브라질 축구의 유니폼 ‘카리리나’는 그렇게 해서 탄생됐다. ‘마라카냥의 비극’에 이어 이번엔 발생한 ‘미네이랑의 참극’. 이로 인해 세계를 호령했던 논란성 유니폼 ‘카리리나’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게 됐다. /최재호 사회부장 lion@kwangju.co.kr

<p><b>光 州 日 報</b></p>		<p>The Kwangju Ilbo</p>	
<p>사창·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申港樂</b> 편집국장 <b>奇賢鎬</b></p>		<p>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p>	
<p>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b>광고문의 062-227-9600</b></p>			
<p>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p>	<p>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p>	<p>정 치 부 2200-642 여론대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p>	<p>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p>
<p>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7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p>			